

➤ Advice : 2

학원강의 활용법

종합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1. 소개

저는 3번의 실패를 겪고 2024년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2021, 2022년도 시험은 인강과 독학 위주로 공부했고, 2022년 8월(3 순환)부터 한림법학원 종합반에서 공부하여 1년 5개월 동안 약 200점을 올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패턴이 불규칙하고 성실성도 부족하여 공부에 몰입하지 못한 채 온갖 스트레스만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전형적인 N시생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를 적어 봅니다.

2. 한림법학원을 선택한 이유

로스쿨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남은 것은 졸업시험 전 과목 탈락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단 한 과목도 공부가 되어있지 않았고 아무리 쉽게 쓰인 수험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혼자서는 공부 자체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새하얀 백지 그 자체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졸업시험 통과조차 저에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자퇴를 정말이지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포기할 때 포기 하더라도 졸업시험 한 번은 더 보자는 생각에 우연히 고른 김남훈 변호사님의 '에션셜 민법 핵심암기장'과 이재상 박사님의 '새로 쓴 로스쿨 쟁점별 핵심암기장'을 인강을 들으며 1 회독 꼼꼼히 공부했고 그 결과 당시 저의 기대 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점수로 졸업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두 분이 계신 곳이었기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림법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3. 점수

가. 종합반 수강 전

졸업시험 통과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 2022년도 시험은 학원 종합반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인강+독학의 형태로 공부했습니다. 게으른 생활습관과 약한 멘탈의 조합으로 수험가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알려진 것들은 모두 하며 자연스레 심연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2021, 2022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창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총점	706.35
총점	726.45

나. 종합반 수강 후

두 번의 변호사시험에서 700점대 초반의 창피한 점수를 받은 저는 2022년 8월(3 순환)부터 한림법학원 종합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점수가 워낙 낮았기에 고집을 부릴 것도 없이 학원 커리큘럼 및 교수님들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부수적인 고민 없이 약 5개월간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에서 90점 정도가 올라 처음으로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점	816.98
----	--------

비록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5개월 만에 약 90점 상승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는 저에게 4번째 도전에 대한 용기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한림법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강의, 교재, 공부방법론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2023년 1년간 온전히 한림법학원 종합반(1, 2 순환 강의반/ 3, 4 순환 첨삭반)에서 학원 스케줄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다시 한번 약 95점이 올라 911.48점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점	911.48
----	--------

4. 한림법학원의 특징

가. 전체적인 분위기

한림법학원은 참 따뜻한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학을 가르치는 학원임에도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분들 모두가 친절하고 따뜻하셔서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중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했고 원하는 교수님과 1:1로 면담할 수 있어 공부하는 내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항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1년의 과정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종합반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나 동영상 강의를 교수님이나 직원분이 재량껏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았으며, 김남훈 변호사님의 경우 종합반 학생들을 위해 민사법 암기장 강의, 복습영상 등을 1년 내내 열어 주십니다.

나. 교재

한림법학원의 커리큘럼을 1년간 따라가게 되면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교재가 정리됩니다.

[1. 암기장, 2. 최신판례집, 3. 사례 및 기록 자료집(진모+파이널), 4.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이 중 최신판례집은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제외하고 나면 후반부에 가서는 한 과목당 3권이 변호사시험 2주 전 전 과목 1 회독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분량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강의를 통해 쟁점 중요도, 이번 시험 출제 가능성 등을 검토해주시므로 시험 바로 전날 보고 들어갈 부분까지 미리 교재에 체크해 둘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3 순환 때부터는 위에 언급한 교재들 외 그 어떤 자료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 민법/민사소송법/상법(김남훈): ‘딱 적당한 깊이와 분량’

모두가 알다시피 민법+민사소송법은 분량이 압도적인 과목입니다. 기본서로 깊이 있는 공부만을 추구하다가 1년 동안 두 과목만 해도 모자랄 지경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얇은 책으로 암기만 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을뿐더러 설령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을 만큼 충실한 답안지를 써낼 수 없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님의 민법, 민사소송법 강의와 교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를 목표로 깊이와 최소분량이라는 모순되는 양극단을 딱 적당하게 조화시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의 두께는 평균적인 수험서와 비슷하나 강의를 통해 매 순환마다 양이 줄어들게 되어 최종적으로 민사법 시험 전 휴식일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주요 쟁점 순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상법 주 교재(암기장)는 다른 유명 상법 교재들에 비해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구멍이 없으며, 강의를 통해 한번 정리해 놓으면 수험기간 내내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뒤 치른 2023,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변호사시험의 상법 사례형 문항 중 이 교재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는 없었으며 다른 상법 강사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깊게 정리해 주시기에 소화만 해낸다면 상법 사례에서 고득점을 충분히 노려볼만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합격에 김남훈 변호사님 상법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며 점수 또한 전 과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민사법 세 과목을 같은 스타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민사법 공부방법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점과 세 과목을 넘나들며 설명해 주시는 덕에 과목별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 헷갈리는 부분들을 강의시간에 바로 비교 정리하며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남훈 변호사님은 각 순환 초반 그 시기에 맞는 민사법 공부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는데 내용으로나 양적으로 결코 달성하기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면 적어도 합격점 이상의 점수는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확신합니다.

라. 상법(이종모): '상법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강의'

저는 상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종모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심연의 점수대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상법은 법학 초보자가 처음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도 특히 더 낯설고 일상에서 접할 일 없는 회사법, 어음법 등을 다루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종모 박사님의 강의는 어려운 상법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들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상법의 벽을 허물어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종모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상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고, 이후 김남훈 변호사님의 상법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정리해 두었던 이종모 박사님의 책(암기장)으로 기본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며 시험 때까지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저처럼 상법이 벽처럼 느껴지는 분이라면 이종모 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이종모 박사님의 유머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마. 형법(이재상): '쟁점은 날카롭게, 답안지는 간결하게'

개인적으로 이재상 박사님의 암기장은 수험서 중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기본서, 사례집, 객관식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한 권의 책이 다 해줍니다. 물론 최신판례 공부와 실전 사례 연습은 따로 하셔야 하지만 종합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형법 기본서를 대신하여 시험 전까지 회독할 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재상 박사님의 강의는 철저히 실전 위주의 강의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형사법 사례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기술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모든 사례를 [1. 쟁점 2. 판례 3. 검토]로 간결하게 반복 연습하여 순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대부분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고 시간 조절까지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형법 총론의 쟁점들은 눈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두 번의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형사법 사례형 시험을 완주한 적이 없었으며 진정, 부진정 통백을 수두룩이 내며 형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재상 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간 이후 첫 시험(3번째 시험)에서 처음으로 형사법 사례형 완주를 경험했고, 점수 또한 전 과목 중 가장 잘 받게 되면서 형법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 자신감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민사법과 공법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합격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재상 박사님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간 다수의 종합반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간은 대폭 줄었으나, 점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변호사시험 사례형의 경우 모의고사 시간에 풀어보았던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출제되어 저로서는 여유롭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 형사소송법(정주형): '사건 자체가 통으로 기억나게'

정주형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따라가기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걸음 한걸음 기본부터 충실히 공부하게 되며, 판례의 경우 사건 자체를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해당 사건에서 이해해야 할 법리, 암기할 키워드를 세트로 공부한 뒤 그것들을 다시 구조화된 간단한 필기로 정리해 주셔서 사건 자체가 머리에 남게 됩니다.

강의 특성상 필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한번 해 두면 그 필기가 수험생활 후반부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복습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되어 회독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줄고, 신기하게도 사건을 통으로 기억하게 되어 판례가 비슷하게 변형되어 출제되었을 때 관련 법리,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객관식 교재도 꼼꼼한 필기로 정리해 주시며 두문자까지 만들어 주셔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4번의 변호사시험 중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법 시험 전날 밤 형사소송법 중요 쟁점을 모두 회독하고 시간이 남아 형법까지 챙겨볼 수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직접 받아 적으며 정리한 필기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 정주형 교수님의 형사 기록형 수업에서 특히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증거법 파트는 별도의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완전히 숙달될 만큼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 형사 기록에서 읽어야 할 부분과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을 배웠으며, 숨어 있는 작은 형사소송법 쟁점들을 찾아내어 점수를 최대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CBT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메모법은 형사 기록형 답안 작성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켜 주어 늘 시간 부족으로 허덕이던 제가 이번 시험에서 답안지를 완성하고도 12분가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 헌법(선동주): '이해는 정통으로, 암기는 재미있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법학 강의 중에 가장 좋았던 강의를 꼽으라면 선동주 선생님의 강의를 꼽을 것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언어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그 설명 방식이 매우 설득력 있어 매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음성, 지칠 때쯤 한 번씩 해 주시는 응원 한마디, 재미있고 기발한 두문자까지 3시간 반의 강의를 마치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흡입력이 있어 지루할 새 없이 헌법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개념의 설명은 매우 천천히, 정통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기본권의 역사적 배경부터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까지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헌법을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설명 직후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기발한 두문자를 만들어 주셔서 강의를 들으며 이해와 암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두문자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붙는 것은 물론이고 두문자마다 고유의 스토리가 있어 별도의 시간 투자 없이 수업시간 중에 암기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문자의 고유의 스토리가 실제 학습 내용과도 제법 연관성이 있어 두문자가 떠오르면 실제 내용을 잇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문자를 수 없이 만들어 보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선동주 선생님이 제시하는 최종 교재는 헌법집중 키노트와 판례 키노트라는 교재인데 정규 수업과는 별도로 키노트 특강을 두 번 이상 해주셔서 시험장에 가져갈 최종 자료를 완성 및 반복시켜 주십니다.

선동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난 뒤 저의 헌법 점수는 비약적으로 올랐고, 사례형, 기록형에서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겁먹지 않고 자신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학원을 다니시거나 다른 교재를 메인으로 보시더라도 선동주 선생님의 헌법 강의는 한 번이라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행정법(서창교): ‘행정법을 쉽게 느껴지게’

서창교 선생님의 강의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보통의 법학 강의들이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라면 서창교 선생님의 강의는 밝고 경쾌합니다. 농담도 자주 해주셔서 지칠 때쯤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풍부한 설명에 이어 한번 더 핵심을 구조화하여 정리해 주셔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창교 선생님의 교재는 제가 기존에 보던 교재들에 비해 내용이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은가 걱정했으나 강의시간에 간단한 도식형태의 구조화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독이 가능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잊은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교재가 완성됩니다.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유명한 쟁점들 위주의 출제가 아니어서 따라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한 것이 실제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변호사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풀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행정법 선택형은 시간이 없어 기출문제집을 따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서창교 선생님의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집(180P.), 3 순환 때 따로 제공해 주셨던 최신판례 ox 자료(60P.)만으로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수험생활 팁

마지막으로 저처럼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고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제 나름의 수험생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마음을 가볍게

실패했던 3번의 수험생활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는 1년간의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마음이 가벼울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매일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계획/일지를 썼는데 매일 ‘Light as a feather’라는 문구를 빼먹지 않고 상단에 제일 크게 써놓았습니다. 일부러 인생의 더 큰 문제들을 떠올려 보며 변호사시험에 대한 중압감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공부도 더 잘되고 1년을 지치지 않고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나. 휴식은 화끈하게, 단 계획적으로

1년 동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슬럼프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슬럼프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3번의 수험생활을 겪으며 스스로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쉬고 싶다는 증상을 보이는데도 무리해서 버티다 한번 폭발하면 몇 주 동안이나 슬럼프에 빠져 공부도 휴식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몇 주간의 슬럼프가 지나가고 마음을 잡아도 진도가 많이 밀려 중압감은 배로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또 쉽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올해는 1년간 항시 저의 몸과 마음 상태를 관찰했고 주중에라도 슬럼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다음 날은 계획적으로 과감하게 쉬었습니다. 단, 쉬는 날은 아예 공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며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적으로 2~3일을 완전히 쉬는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예전처럼 몇 주를 허비하는 슬럼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1년의 과정을 큰 구멍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상시 점검해 계획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면 합불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큰 슬럼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계획은 매일 매일 간단하게

종합반을 선택하신다면 어차피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날 공부해야 할 진도나 꼭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을 태스크 형태로 간단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 배분을 하면 다음 날 하루를 아무런 고민 없이 보내게 되어 오직 공부 내용 그 자체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주, 월, 분기 단위의 계획은 공부를 해나가며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에 시간을 많이 들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커리큘럼을 큰 줄기로 잡고 따라가되 학원 수업 외적으로 꼭 정리해야 할 중요한 것들만 매일 간단하게 상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라.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믿기

김남훈 변호사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시중에 있는 교재 다 좋으니까 한번 잡았으면 그 해는 끝까지 그 책으로 공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활 중 특정 과목의 공부가 재미없거나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책 변경의 유혹이 꼭 찾아옵니다. 웬지 책이 부족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다른 강사님의 커리큘럼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안 사본 책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책을 바꾸는 것은 책을 구매하는 그 순간 아주 잠깐의 진정 효과 이외에 어떠한 이점도 없었습니다.

어떤 책, 어떤 강의라도 한번 결정한 커리큘럼으로 1년간 끝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당 교수님의 강의 내용, 스타일과 노하우를 온전히 소화하여 나만의 무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림법학원 종합반의 경우 전 과목 강의와 교재가 같은 형태로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부교재들도 존재하지만 반복적으로 공부할 책은 과목별 [암기장 + 사례 및 기록 자료집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집]으로 깔끔하게 단순화됩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전 과목이 정리되었을 때 시험 2주 전 전 과목 암기장 + 객 + 사 + 기 1 회독이 가능했고, 시험 전날에도 무리 없이 표시해 둔 쟁점들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커리큘럼을 끝까지 믿고 충실히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 스터디 메이트

저는 한림법학원 종합반에서 좋은 스터디 메이트를 만나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은 학원, 같은 스케줄로 공부했기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상기해 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서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가벼운 복습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복습했다면 공부시간의 연장이 되어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을 텐데 함께 이야기 나누며 스트레스도 풀고 복습효과까지 누렸으니 정말 효율적인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메이트의 존재는 특히 생활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오늘 하루 설까 하다가도 행여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메이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억지로라도 학원에 나가 공부하게 되는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공부할 힘이 생겨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수험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험 스트레스로 힘들 때도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이겨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같은 공부,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함께 걷고 있는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 한림법학원을 선택했다면

(1)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하자

아직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해 두지 않으셨다면 늦어도 3 순환 시작 전까지는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객관식을 정리하는 시간은 3 순환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선택형 준비를 하게 되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학습 패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택형 주 교재로 기출문제집을 보지 않게 되더라도 기출문제집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학원 선택형 주 교재(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정리하고 회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헌법과 형법은 선동주, 이재상 교수님의 해지총 강의로 정리하였고 나머지 과목들은 스스로 기출문제집을 풀며 정리하였습니다.

(2)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수험기간 동안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내용 중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서 가급적 당일에 해결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거리를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너무 많아져서 포기해 버리게 되거나, 나중에 질문하더라도 당시 질문하고자 했던 취지를 잊게 되어 궁금했던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습 내용 외적으로,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생각될 때에는 김남훈 변호사님과, 멘탈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재상 박사님과, 수험생활의 전반적인 지도와 용기가 필요할 때에는 선동주 교수님과 면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들 모두 따뜻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시며 항상 명쾌하고 신뢰 가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3) 선택법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림법학원 종합반은 선택법 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스스로 꾸준히 선택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매주 주말 중 하루는 선택법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주중에는 학원에서 7 법 공부에 전념하고, 주말 하루는 선택법, 하루는 온전히 쉬는 패턴으로 3 순환까지 보냈고 4 순환부터는 선택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몰아서 선택법을 준비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7 법 공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선택법 준비는 조금씩 꾸준히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기본이 부족하다면

점수가 증명하듯 저는 기본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했기에 종합반 수업 이외에도 추가로 특강을 수강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갔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들 중 특히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 몇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상: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 사례 특강, 형법 선택형 기출정리 특강, 형법 암기장 특강

이재철: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특강

3. 선동주: 헌법 조문정리 특강, 헌법 선택형 기출정리 특강

6. 마치며

짧고 간결한 수기를 쓰려고 했으나 수험생으로서 저와 같은 상황,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될 분들을 위한 마디라도 더 전하려다 보니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림법학원에서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앞으로 한림법학원에서 공부하게 될 수험생분들 중 혹시라도 N시, 학원생활, 공부방법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수님들을 통해 연락 주시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